

2019.03.25

# 애플론 (174900)

## 바이오포럼 후기 항체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경쟁력 구비

### 항체신약 후보물질 개발 & 조기 기술이전 사업모델 추구

동사는 항체신약 디스커버리 플랫폼(NEST&AffiMab)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 트렌드에 부합한 자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개발 중이다. 항체신약 니즈가 강한 글로벌 제약 사들 입장에서는 효능 및 부작용 등에서 차별화된 항체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과 함께 조기 기술도입 전략을 선호한다. 동사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이후 임상 전 조기 기술이전 사업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지녔다고 판단한다.

### 항체 개발 플랫폼 기반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NEST는 질환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매커니즘의 차별적 항체 개발 플랫폼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AC101(위암/유방암)은 병용치료에 특화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동물모델에서 허세팁과 병용요업시 허셉틴/퍼제타 대비 뛰어난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전임상에도 불구하고 L/O를 성공했다. AffiMab은 두개 질환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항체신약 개발 플랫폼이며, 이를 활용해 AM201(류마티스관절염/TNF- $\alpha$ 와 IL-6 동시 억제), AM105(대장암·폐암/EGFR과 4-1BB 타겟) 등을 확보했다. AM201 역시 동물모델에서 휴미라 대비 우수한 염증단백질 감소 효과가 확인된 상태로 향후 글로벌 임상 또는 L/O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차세대 CAR-T 치료제 플랫폼 원천특허도 보유 중이다.

### 파이프라인 확장 통해 기술이전 기회 많아질 것

NEST&AffiMab 플랫폼의 경쟁력은 파이프라인 확장성이다. 차별적인 항체 선별 기술을 통해 신규 에피토프 및 독자적인 이중항체 발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정 질환단백질에 한정되지 않고 파이프라인의 지속 확장이 가능하다. 향후 적응증 확대해 차별적 약효를 지닌 신약후보 물질을 꾸준히 도출해낸다면 동사 사업모델인 조기 기술이전 기회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2014	2015	2016	2017	2018P
매출액 (억원)	18	19	31	35	39
영업이익	-21	-31	-16	-15	-20
순이익	-32	-98	-16	-15	-8
EPS(원)	-636	-1705	-262	-235	-208
PER(배)	-	-	-	-279.7	-195.8
PBR	-	-	-	25.7	9.2
EV/EBITDA	-	-	-	-345.5	-159.0
ROE(%)	209.0%	-181.8%	-12.6%	-10.1%	-4.6%

자료: 애플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 N.R

목표주가(12M) -

### 임동락 Analyst

limrotc37@hygood.co.kr

02-3770-5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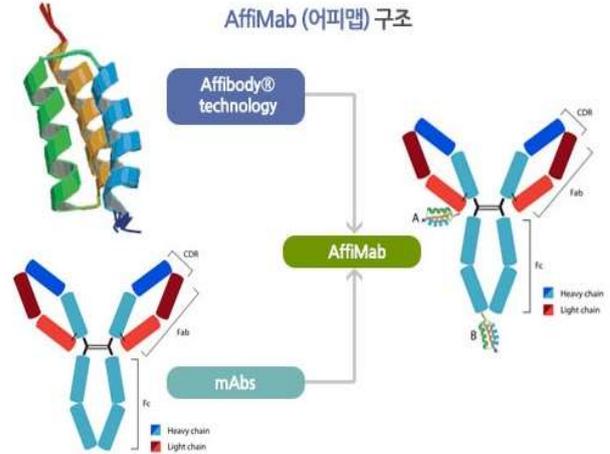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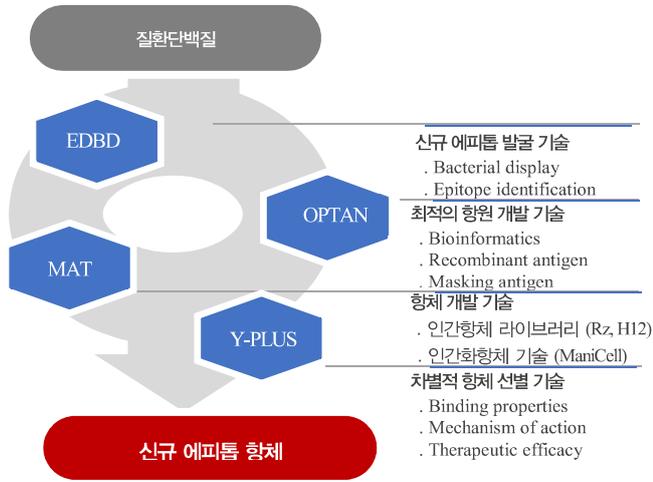
### 주가지표

KOSPI(03/22)	2,187P
KOSDAQ(03/22)	744P
현재주가(03/22)	50,400원
시가총액	3,620억원
총발행주식수	718만주
120일 평균거래대금	728억원
52주 최고가	68,800원
52주 최저가	35,750원
유동주식비율	79.3%
외국인지분율(%)	10.6%
주요주주	이종서 외 6인 (19.7%)

### 상대주가차트



[도표1] NEST & AffiMab 플랫폼



출처: 애플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도표2] 기술이전 관련 사업화 실적

구분	계약일	계약상대	내용	Total Value
기술이전	18.11.01	상하이 헨리우스 바이오텍	AC101 글로벌 판권 기술이전	456억원(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공동개발)	18.05.30	유한양행	AffiMab 플랫폼 활용 항체신약 공동개발	20억원(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16.10.27	상하이 헨리우스 바이오텍	AC101 중국 판권 기술이전(글로벌 옵션 별도)	1,650만\$(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공동개발)	16.08.23	유한양행	NEST 플랫폼 활용 항체신약 공동개발(Project A)	비공개(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공동개발)	16.05.30	유한양행	NEST 플랫폼 활용 항체신약 공동개발(Project B)	비공개(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16.05.02	Alligator Bioscience	NEST 플랫폼 활용 후보물질 추가 개발 후 Buy-Out	741만 SEK(10.5억원)
기술이전 (공동개발)	16.04.08	유한양행	NEST 플랫폼 활용 항체신약 공동개발(Project C)	비공개(로열티 별도)

출처: 애플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도표3] 항체의약품 단계별 기술이전 사례

Table 5. Antibody and ADC partnerships by stage at signing – therapeutic product deals (Jan 2009–July 2014)

Development stage	No. Of deals	Aggregate min. Announced deal value	Average min. Announced deal value	No. Of deals disclosing min. Announced value	Aggregate upfront cash	Average upfront cash	No. Of deals disclosing upfront cash
Discovery	9	\$828	\$207	4	\$7	\$7	1
Preclinical	56	\$5,580	\$243	23	\$220	\$24	9
Phase 1	19	\$3,976	\$442	9	\$144	\$21	7
Phase 1/2	7	\$1,694	\$424	4	\$158	\$40	4
Phase 2	20	\$6,091	\$469	13	\$792	\$72	11
Phase 2/3	1	N/D	N/D	0	N/D	N/D	0
Phase 3	9	\$571	\$11.4	5	\$26	\$9	3
Registration	1	N/D	N/D	0	N/D	N/D	0
Approved	2	\$25	\$25	1	\$25	\$25	1
Market	6	\$141	\$70	2	\$21	\$21	1

\* An additional 30 product partnerships did not disclose the products or their stages at signing  
All figures in USD millions. Source: BCIQ: BioCentury Online Intelligence. Data as of 8/5/2014

출처: 애플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